

함평군, 국향대전 자원봉사자 친절교육

박지에 강사 초빙 '친절하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다음달 5일부터 17일간 개최...6개 프로그램 운영

함평군은 지난 14일 '2021 대한민국 국향대전' 성공 개최를 위해 축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이상의 함평군수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친절교육, 축제 운영현황 및 프로그램 설명, 활동요령 안내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교육을 위해 초빙된 박지에 강사는 '친절하면 모두가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친절역량 강화교육을 실시, 자원봉사자들로부터 큰 호응

을 얻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국향대전이 오랜만에 관광객과 군민들을 맞이하는 만큼 자원봉사자 분들에게서 친절과 미소로 활동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내달 5일부터 17일간 개최되는 국향대전에서 6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군립미술관, 자연생태관 등 총 6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며 축제 질서유지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함평=김광춘 기자



무안 해제 정훈농장 박성순 대표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대통령상'

무안군은 충북 음성 축산물공판장에서 지난 12일 개최한 제24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해제면 정훈농장 박성순 대표가 영예의 '대통령상(1위)'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무안을 민주농장 손현균 대표가 '축산물품질평가원상(7위)'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37회 전라남도 한우경진대회 고급육 품평회에서 몽탄면 현진농장 김원길 대표가 거세우 부문 3위를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는 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기 위해 출품육의 육질, 육량 평가 및 유전능력 등을 평가해 '국내 최고 한우'를 선별하는 행사이다.

이번 대회에서 전국 최고 한우 사육농가라는 명성을 얻게 된 박성순 대표의 출품육은 출하체중 897kg에 도체중 542kg, 등심 단면적 136cm², 등지방 두께 11cm, 육량 지수 63.38로 최종 등급 1++A를 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또한 한우능력평가대회 역대 최고가인 7046만원에 낙찰되었으며, 거래가는 kg당 13만원으로 올해 거래된 전체 한우 평균 경매가 대비 6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무안군에서는 목포무안신안축협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자질이 우수한 한우를 체계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우등록사업, 1등급 고능력 정책 지원 등을 통해 무안 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무안한우가 전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박성순, 손현균, 김원길 농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무안 축산농가 소득증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세계 최고품질 '신안천일염' 생산에 앞장

전국 생산량 75%차지...생산시기 조정 통한 품질 차별화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약 75% 이상을 차지하는 신안천일염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청정갯벌에서 생산되어 각종 미네랄과 철분, 칼슘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명품 천일염이다.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천일염은 기후, 주변환경 및 생산시기

등에 의해 품질차이가 나는데, 이 중에서도 생산시기가 가장 주요 요인으로 작용된다.

신안군에서는 천일염 생산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고품질 천일염 생산을 위해 오는 10월 16일부터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봄가을에 생산되는 소금은 알갱이가 작고 나트륨함

량이 높아 쓴 맛이 강하여 신안천일염의 품질저하를 우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안군에서도 천일염 생산자들의 노력에 발맞춰 생산종료시기를 어진 생산자에게는 보조금 등 각종 지원에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올해처럼 천일염 가격이 높음에도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생산자 스스로 품질관리를 위해 생산시기를 조정하여 지켜주는데 감사드리며, 천일염산업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안=이덕주 기자

영암군, 전국 농기계임대사업 4년 연속 우수

영암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시행한 '2021년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전국 146개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지난 1년간 임대사업소 인력 및 조직, 사업추진 성과, 임대실적, 임대료수준, 농기계 안전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2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 노후 농기계 교체 비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3개소(덕진본점, 서부본점, 시종본점), 총 34종 701대의 임대농기계를 운영 중이며 지난해 7,824명의 농업인이 12,584일간 6,395ha의 농작업을 추진해 영암농



업에 없어서는 안 될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농가 경영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9개월 동안 임대료 전액 감면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50% 감면을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 문제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영농인력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 평화광장에 내달 14일까지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목포시가 평화광장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는 등 '가을철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가을 행락철 지역간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는 성 어기를 맞아 외국인 선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아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평화광장 음악분수대 정면에 컨테이너와 몽골텐트를 설치해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2주간 외국인 선원 21명이 코로나19 확진됨에 따라 모든 입·출항 어선의 선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접종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는 조속한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방역점검을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 조기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 기자

김준성 영광군수, 산물벼 매입 현장 찾아

2021년산 공공비축미곡 160277포/40kg 매입 추진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난 14일 공공비축미곡 산물벼를 매입하고 있는 영광통합RPC·염산DSC·백수RPC·굴비골DSC 4개소를 방문하여 매입 관계자 및 출하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량은 160,277포/40kg(산물벼 12,500포, 건조벼 147,777포)로 전년도에 비해 3,143포가 증가한 물량이며, 산물벼는 10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농협통합RPC에서, 건조벼는 11월 중 읍면별 창고에서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품종은 신동진과 새청무 2종이며 다른 품종을 혼입할 경우 5년간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건조벼는 13~15% 수분을



유지한 상태로 40kg 또는 800kg 포장재에 담아 출하하면 된다.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은 농가가 수매한 직후 중간정산금(30만원/포대)을 우선 지급하고 최종정산금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반영해 12월 중 매입가격 확정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2021년 완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

해양치유, 깨끗한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 치유하는 건강증진활동

해양치유산업
완도군이
선도합니다!